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20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3학년도 7월 모의고사 26~31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십 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 의구하되 인사(人事)는 달라졌구나
아마도 세간의 존멸을 못내 슬허 하노라

<제1수>

산화(山花)는 물의 피고 물새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여 산수간의 누어시니
세상의 어즈러운 괴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제4수>

거문고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청풍은 건듯 불고 명월도 도라온다
하물며 유신(有信)한 갈매기는 오명 가명 하나니

<제5수>

거문고 흥진(興盡)커던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도화 뜬 말근 물 뛰노나니 고기로다
아이야 밋기 다지 마라 취적(取適)*이나 하오리라

<제7수>

- 신교, 「귀산음(歸山吟)」-

* 취적: 낚시질의 참뜻이 세상 생각을 잊고자 하는 데 있음.

(나)

백수(白首)에 산수 구경 늦은 줄 알지마는
평생 품은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여겨
병자년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죽장망혜(竹杖芒鞋)로 노계 깊은 골에 마침내 찾아오니
제일강산(第一江山)이 임자 없이 버려져 있네
예로부터 은사 처사 많이도 있지마는
천지가 감춤했다가 나를 주려 남겼도다
(중략)

[A]

하물며 태평 시대에 버려진 몸이 할 일이 아주 없어
세간명리(世間名利)는 뜯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탈속의 마음만 품고서
이내 생애를 산수에 깃들인 채
길고 긴 봄날에 낚싯대 비껴 쥐고
침두건 배옷으로 낚시터 건너오니
산의 비 잠깐 개고 햇별이 쬐는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고요한 수면이 더욱 밝다
검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세겠노라
고기도 낚이 익어 놀랄 줄 모르니
차마 어찌 낚겠는가
낚시 놓고 배회하며 물결을 굽어보니
운영천광(雲影天光)*은 어리어 잠겼는데
어약우연(魚躍于淵)*을 구름 위에서 보는구나
㉠ 하 문득 놀라 살펴보니 위아래가 뚜렷하다

[B]

[C]

[D]

한 줄기 동풍에 어찌하여 어부 피리 높이 불어오는가
적적한 강가에 반갑게도 들리는구나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E]

- 박인로, 「노계가(蘆溪歌)」-

* 운영천광: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
* 어약우연: 물고기가 연못에서 뿜.

(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린수린 신록(新綠)의 문이 열리리라. 그 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뺏으면서 연둣빛 물감을 풀어 내고 싶다. 가려 둔 속 뜰을 꽃처럼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제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찝찝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니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틀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

2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을 후회하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옛 성현의 말을 반복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제4수>에서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다.
- ③ <제5수>에서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 ④ <제7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한다.
-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언급하며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28.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평생 품은 뜻'이 의미하는 바를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A]의 '봄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C]의 '베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대조되고 있다.
- ③ [B]의 '산수에 깃들인 채' 사는 삶의 양상을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B]의 '욕심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D]의 '고기 수'를 셀 정도로 맑은 자연의 이미지가 [E]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형상화한 사대부들의 시가를 일컬어 '강호시가'라고 한다. 강호시가에서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곳일 수도,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은 화자가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으로서,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삶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자연은 화자가 '고향'의 '산천'이 '의구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에게 익숙한 곳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의 자연은 '임자 없이' 감춰져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십 년', (나)의 '백수'는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화자가 노력한 세월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어즈러운 괴별'과 (나)의 '뜬구름'에서 화자가 속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⑤ (가)의 '산수간'에 누워 있는 모습과 (나)의 '누대의 맑은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0.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하늘의 모습을 물에서 보게 된 것에 대한, ㉡은 산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② ㉠은 하늘과 물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은 선명하게 드러난 산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③ ㉠은 하늘이 물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에 대한, ㉡은 산이 주변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④ ㉠은 하늘과 맞닿은 물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에 대한, ㉡은 산과 주변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⑤ ㉠은 하늘과 물이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한, ㉡은 과거와 달라진 현재 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구속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 지식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며, 지식을 토대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인다. 따라서 지식을 완전히 멈출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미지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①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지식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겠군.
- ③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개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시들한 관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볼 수 있겠군.